

올 겨울, ‘난(暖) 2018!’

적정실내온도(18~20℃) 실천 약속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난 2018’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고유가 극복 위해
범 국가적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운동 전개**

**내복입고 3℃ 낮추기,
1조 500억원 절감**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5일 KT 광화문지점 15층 회의실에서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이를 시작으로 범국민적 겨울철 실내적정온도 준수를 위한 ‘난(暖) 2018’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대한상공회 김상열 부회장, 소비자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욱 회장과 다소비 건물 대표, 13개 민간단체장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할 이들이 모여 에너지 절약을 다짐했다.



'난 2018'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실내적정온도 유지를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있다.

김균섭 이사장은 “공단은 그동안 고유가의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불필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내복입기, 선풍기로 여름 시원하게 나기 등의 에너지절약 실천대회 실시해왔으며, 높은 호응도로 에너지절약에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대형 건물이나 다소비사업장에는 에너지소비가 높게 나타난다”며 ‘난(暖) 2018’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난(暖) 2018’의 2018은 겨울철 실내건강온도인 20℃~18℃를 뜻으로, 이는 ‘나는 2018을 준수하겠다’ 혹은 한자 따듯할 난(暖)을 이용하여 ‘2018을 지켜 따듯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공단은 이번 ‘난(暖) 2018’ 운동을 통해 겨울철 실내적정온도인 20℃~18℃를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 올바른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3℃ 낮출 경우 전체 난방에너지 사용량의 20%가 절감되어 돈으로 환산하면 1조 500억원 가량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으며, 겨울철 지나친 난방은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실내공기가 건조해져 겨울철 호흡기질환이나 아토피 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건강온도인 2018을 지키면 겨울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다.

‘난(暖) 2018’ 캠페인은 그간 공단이 펼쳐온 일련의 에너지 과소비 문화 바로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공단은 지난 겨울 내복입기 캠페인을 펼쳐 겨울철 내복입기 붐을 조성한 적이 있으며, 올 여름에는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46만 명의 서명과 약속을 받아내며 에너지절약의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냉·난방용 에너지를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략 미국 18.3℃, 영국·프랑스 19℃, 일본 20℃ 이하를 겨울철 실내온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조사한 2004년 우리나라 공공장소의 겨울철 평균실내온도는 22.4℃로 나타나 우리의 잘못된 난방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실내에서 여름철에는 긴소매를, 겨울철에는 반소매를 입는 에너지과소비 풍조가 존재한다. ‘난(暖) 2018’ 운동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고 선진적 난방문화를 정착시켜 고유가 상황과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에 국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